

최근 대중 수출 감소의 원인: 석유화학 품목을 중심으로

최필수 아시아태평양실 중국팀 부연구위원 (pschoi@kiep.go.kr, Tel: 3460-1022)

김영선 아시아태평양실 중국팀 연구원 (youngsun@kiep.go.kr, Tel: 3460-1272)

차 례 ● ● ●

1. 최근 한국의 대중 수출 현황
2. 대중 수출 감소 원인
3. 시사점 및 전망

주요 내용 ● ● ●

- ▶ 2014년 1~6월 대중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.6%, 3.6%, 4.3%, 2.3%, -9.4%, -1.1%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임.
- ▶ 2014년 1~5월 품목별 대중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석유화학 품목의 수출 감소액이 가장 컸음.
 - HSK 2단위 기준으로 광물성연료(27), 유기화학품(29) 품목의 2014년 1~5월 수출액은 각각 31억 달러, 55억 9,3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.1%, 12.7% 감소했음.
 - 2014년 1~5월 이들 석유화학 품목의 수출액이 전체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%임.
- ▶ 한편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한 품목 가운데 기타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경우가 있음.
 - 석유와 역청유(瀝靑油) 관련 기타 품목(271019)은 베네수엘라, 경질(輕質)석유와 조제품(271012)은 러시아, 파라-크실렌(290243)은 오만, 벤젠(290220)은 일본, 에틸렌(290121)은 대만과 일본, 아크릴로니트릴(292610)은 미국과 대만에서의 수입이 증가함.
- ▶ ‘석유제품’, ‘합성수지’, ‘합성고무’, ‘합성섬유’ 카테고리에서 모두 중국의 국내 생산은 증가하고 수입은 정체·하락하는 현상을 보임.
- ▶ 한국의 대중 수출이 제3국으로 전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.
- ▶ 중국의 자체 생산능력이 증대되고, 중국의 고속성장이 지속되기 어려움을 고려할 때, 석유화학 품목에서 과거와 같은 대중 수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한·중 FTA 협상에도 이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함.

1. 최근 한국의 대중 수출 현황

■ 2014년 들어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.

- 2014년 1~6월 대중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.6%, 3.6%, 4.3%, 2.3%, -9.4%, -1.1%를 기록했음.
- 상반기 전체로 집계하면 대중 수출 증가율은 -0.1%로 2013년의 9.7%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임.

■ 경기 둔화로 인해 중국의 수입이 2014년 들어 감소세를 보인다는 점에서, 한국 대중 수출 부진의 일차적인 원인이 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.

- 2014년 3월과 5월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함(표 1 참고).
 - 2월의 수입 증가율이 높은 까닭은 '13년의 수입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기저효과 때문임.
 - 한편 수출 증가율이 2014년 2월과 3월에 마이너스였으나 이는 2013년 핫머니 유입을 위해 대홍콩 수출이 급등했던 기저효과로 읽어야 함.

표 1. 최근 중국의 월별 수출입 증가율

(단위: %)

	13.1	13.2	13.3	13.4	13.5	13.6	13.7	13.8	13.9	13.10	13.11	13.12	14.1	14.2	14.3	14.4	14.5
수출	25	21.7	10	14.6	0.9	-3.3	5.1	7.1	-0.5	5.6	12.7	4.4	10.5	-18.1	-6.6	0.8	7
수입	29	-14.9	14.2	16.6	-0.1	-0.9	10.8	7.1	2.5	7.5	5.4	8.6	10.8	10.4	-11.3	0.7	-1.7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■ 그러나 추세적으로 한국 최대 수출시장인 대중 수출규모는 최근 10년간 둔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4년의 수출 감소도 구조적인 시각에서 원인을 분석해야 함.

- 최근 10년간 한국의 국가별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꾸준히 1위를 지키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됨(표 2 참고).
- 2009년을 제외하고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.

표 2. 최근 10년간 대중 수출 추이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연도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
금액	49,763	61,915	69,459	81,985	91,389	86,703	116,838	134,185	134,323	145,869
증가율	41.7	24.4	12.2	18	11.5	-5.1	34.8	14.9	0.1	8.6
비중	19.6	21.8	21.3	22	21.7	23.9	25.1	24.2	24.5	26.1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■ 이러한 대중 수출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영향력을 가늠하기 위해 2014년 대중 수출이 감소한 품목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·국내 생산, 주요 경쟁국의 대중 수출 동향을 분석하고자 함.

- 특히 수출 감소액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석유화학 품목을 중심으로 분석함.

2. 대중 수출 감소 원인

가. 품목별 대중 수출 현황

■ 2014년 1~5월 품목별 대중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석유화학 품목의 수출 감소액이 가장 컸음.

- HSK 2단위 기준으로 광물성연료(27), 유기화학품(29) 품목의 2014년 1~5월 수출액은 각각 31억 달러, 55억 9,3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.1%, 12.7% 감소했음(표 3 참고).
- 금액으로는 각각 9억 8,300만 달러, 8억 1,600만 달러 감소하여 감소액 순위 1, 2위를 차지함.

표 3. 품목별 대중 수출 감소액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순위	코드	품목명	2013(1~5월)		2014(1~5월)		감소액
	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
1	27	광물성연료, 광물유, 이들의 증류물, 역청물질, 광물성왁스	4,083	-10.8	3,100	-24.1	-983
2	29	유기화학품	6,409	17.8	5,593	-12.7	-816
3	90	광학기기, 사진용기기, 영화용기기, 측정기기, 검사기기,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	8,977	-2.5	8,298	-7.6	-679
4	74	동과 그 제품	953	5.1	580	-39.1	-373
5	89	선박과 수상구조물	290	3,465.00	99	-65.8	-191

주: HSK 2단위 기준.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- 2014년 1~5월 석유화학 품목(27, 29)의 수출액이 전체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%임.
- ‘광물성연료(HSK 27)’의 대중 수출은 2011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, ‘유기화학품(HSK, 29)’는 증가율이 불안정함(그림 1, 그림 2 참고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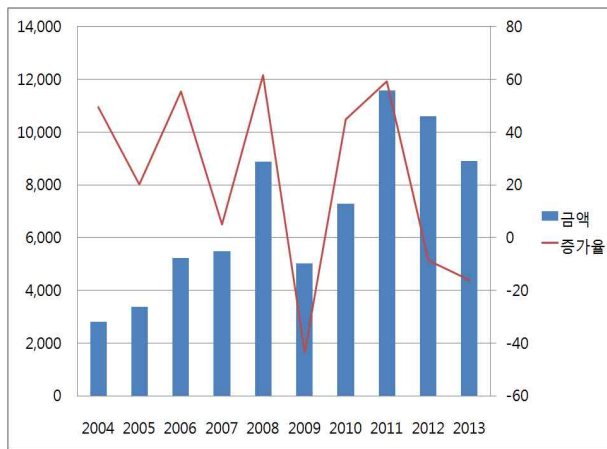
■ 세부 품목으로 보면 HSK 6단위 기준 ‘석유와 역청유(瀝靑油) 관련 기타 제품’, ‘경질(輕質)석유와 조제품’,

‘테레프탈산과 그 염’, ‘파라-크실렌’ 등의 대중 수출 감소액이 크게 나타남.

- ‘석유와 역청유(瀝靑油) 관련 기타 제품’의 2014년 1~5월 수출액은 2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6.5% 감소했으며 감소액은 7억 2천만 달러에 달함(표 4 참고).
- ‘경질(輕質)석유와 조제품’의 2014년 1~5월 수출액은 9,2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5.8% 감소했으며 감소액은 5억 6천만 달러에 달함.
- 그 밖에 ‘테레프탈산과 그 염’, ‘파라 크실렌’, ‘벤젠’, ‘에틸렌’ 등이 석유화학 품목 대중 수출 감소를 주도함.

그림 1. 최근 10년간 대중 수출 추이(광물성연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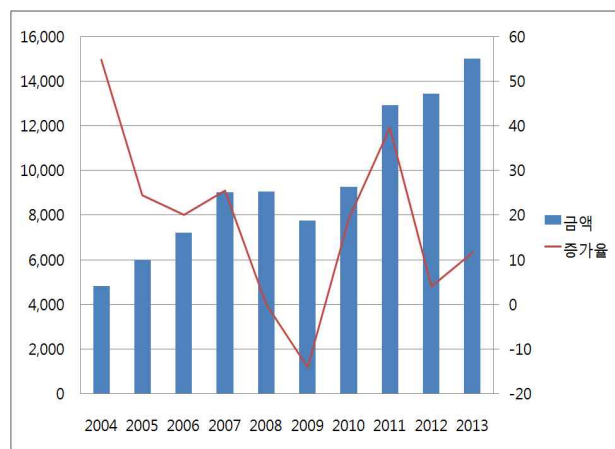
(단위: 백만 달러, %)

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그림 2. 최근 10년간 대중 수출 추이(유기화학품)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표 4. 석유화학 품목별 대중 수출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코드	품목명	2013(1~5월)		2014(1~5월)		감소액
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
271019	(석유·역청유 관련) 기타	2,727	-25.2	2,005	-26.5	-722
271012	경질(輕質)석유와 조제품	647	47.1	92	-85.8	-555
291736	테레프탈산과 그 염	898	-38.1	357	-60.2	-541
290243	파라-크실렌	1,798	67.9	1,371	-23.8	-427
290220	벤젠	203	326.9	89	-56.1	-114
290121	에틸렌	570	53.5	487	-14.5	-83
292610	아크릴로니트릴	147	27.7	133	-9.3	-14
290244	혼합크실렌이성체	102	104.3	91	-11.2	-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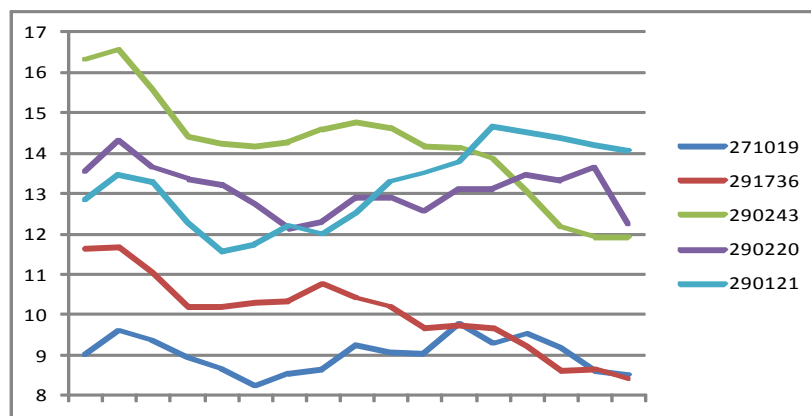
주: HSK 6단위 기준.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■ 수출액이 하락한 품목들에서 수출 가격 하락 현상이 관찰됨.

- [표 4]에서 주요 항목들의 단위당 금액을 조사해 본 결과, 대부분의 품목에서 2013년 이래 가격 하락세가 나타남(그림 3 참고).
- 단위당 금액은 금액/중량으로 설정함.
- 에틸렌(290121), 벤젠(290220)은 2013년에 단위당 가격이 상승했으나 둘 다 2014년 들어서는 가격이 하락함.
- 그 원인으로 중국 본토의 생산이 증가했을 가능성과 중국에 수출하는 다른 국가들의 공급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함.

그림 3. 주요 석유화학 품목의 월별 수출 가격 추이(2013. 1~2014. 5)



주: 단위당 금액(금액/중량)을 설정하여 계산.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■ 한편 석유화학 품목 외에도 광학기와 동 제품, 선박 순으로 수출액 감소가 나타남.

- ‘광학기기(90)’의 감소액은 6억 8천만 달러, ‘동과 그 제품(74)’은 3억 7천만 달러, ‘선박과 수상구조물(89)’은 1억 9천만 달러였음(표 3 참고).

나. 중국의 석유화학 품목 수입 동향

■ 한국의 수출이 감소한 품목의 중국 전체 수입도 감소 추세로, 대체로 비례관계를 드러냄.

- 8개 주요 석유화학 품목의 중국 수입액은 에틸렌을 제외한 7개 품목의 수입액이 모두 감소했음(표 5 참고).
- 2014년 1~5월 대중 수출 감소액이 가장 높은 석유화학 품목은 중국 전체 수입액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-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액이 7억 2,200만 달러였던 ‘석유와 역청유(瀝靑油) 관련 기타 품목(271019)’의 중국 전체 수입 감소액은 31억 9,500만 달러임.

-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액이 5억 5,500만 달러였던 ‘경질 석유와 조제품(271012)’의 중국 전체 수입 감소액은 5억 6,800만 달러임.
- 에틸렌을 제외하고 대체로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액과 중국의 수입 감소액이 대체로 비례 관계를 보임.

표 5. 중국의 석유화학 품목별 수입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코드	품목명	2013(1~5월)		2014(1~5월)		증감액
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
271019	(석유·역청유 관련) 기타	12,381	-6.8	9,186	-25.8	-3,195
271012	경질(輕質)석유와 조제품	1,553	7.2	985	-36.5	-568
291736	테레프탈산과 그 염	1,531	-50	596	-61	-935
290243	파라-크실렌	6,002	53.5	5,328	-11.2	-674
290220	벤젠	525	218.3	398	-24.1	-127
290121	에틸렌	896	30.9	1,065	19	169
292610	아크릴로니트릴	455	0.6	413	-9.2	-42
290244	혼합크실렌이성체	46	20,596.60	14	-70.1	-32

주: HS 6단위 기준.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■ 한편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와 함께 기타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경우가 많음(표 6 참고).

- 석유와 역청유(瀝青油) 관련 기타 품목(271019)의 대한민국 수입은 16.6% 감소했고, 베네수엘라로부터는 13억 7,600만 달러로 18.7% 증가했음.
- 경질(輕質)석유와 조제품(271012)의 대한민국 수입은 67.9% 감소했고, 러시아로부터는 1억 6,400만 달러로 119.5% 증가했음.
- 테레프탈산과 그 염(291736)은 수입 상위 5개국(한국, 태국, 일본, 대만, 말레이시아)으로부터의 전년동기대비 수입이 모두 감소했음.
- 파라-크실렌(290243)의 대한민국 수입은 15.4% 감소한 반면, 오만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억 4,600만 달러로 65.2% 증가했음.
- 벤젠(290220)의 대한민국 수입은 55.6% 감소한 반면,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억 3,000만 달러로 61.8% 증가함.
- 에틸렌(290121)의 대한민국 수입은 6.9% 감소했고, 대만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율은 각각 654.8%, 35.7%임.
- 아크릴로니트릴(292610)의 대한민국 수입은 13.3% 감소했고, 미국과 대만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율은 각각 18.5%, 6.8%임.

■ 이는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다른 나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으로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함.

- 이를 위해서는 품목별 생산 및 설비 현황과 최근 중국과의 경제·무역 관계가 고려돼야 함.
- 또한 최근 원화 가치 강세와 엔화 및 달러 가치 약세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음.

표 6. 중국의 주요 석유화학 품목의 국가별 수입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코드	품목명	순위	국가	2014(1~5월)	
				금액	증가율
271019	(석유·역청유 관련) 기타	1	한국	2,272	-16.6
		2	싱가포르	1,906	-5.1
		3	베네수엘라	1,376	18.7
		4	러시아	1,068	-52.6
		5	말레이시아	642	-26.2
271012	경질(輕質)석유와 조제품	1	한국	224	-67.9
		2	러시아	164	119.5
		3	노르웨이	96	-
		4	벨기에	90	175,682.40
		5	쿠웨이트	83	-
291736	테레프탈산과 그 염	1	한국	386	-58.7
		2	태국	85	-26.7
		3	일본	42	-35.9
		4	대만	31	-90.3
		5	말레이시아	29	-56.2
290243	파라-크실렌	1	한국	1,632	-15.4
		2	일본	1,208	-16.5
		3	대만	814	-13.7
		4	태국	354	-25.3
		5	오만	246	65.2
290220	벤젠	1	일본	130	61.8
		2	한국	95	-55.6
		3	태국	74	-28.9
		4	싱가포르	40	-
		5	말레이시아	21	-56.8
290121	에틸렌	1	한국	544	-6.9
		2	일본	394	35.7
		3	대만	44	654.8
		4	싱가포르	21	-
		5	벨기에	14	-
292610	아크릴로니트릴	1	한국	130	-13.3
		2	미국	129	18.5
		3	대만	112	6.8
		4	태국	25	-42.3
		5	일본	9	-78.6
290244	혼합크실렌이성체	1	필리핀	7	-
		2	대만	3	3,971.50
		3	한국	3	6,338.50
		4	중국	0	50.8
		5	일본	0	644.6

주: HS 6단위 기준.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다. 중국 석유화학 제품 생산과 수입 동향

■ 석유화학 관련 품목들 중 생산과 수입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‘석유제품’, ‘합성수지’, ‘합성고무’, ‘합성섬유’를 중심으로 비교함.

■ 석유제품은 중국 내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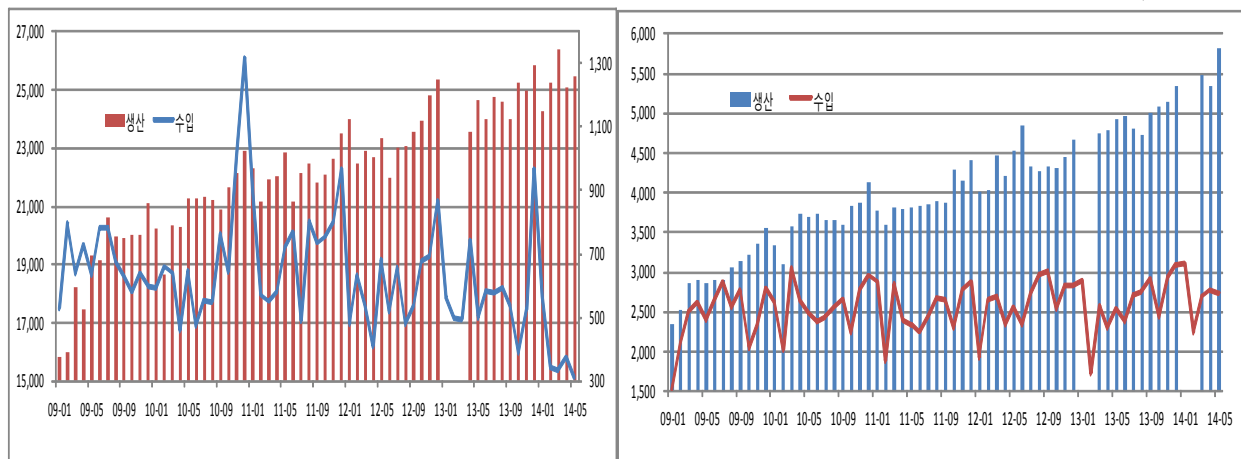
– 석유제품의 생산은 2014년 1월, 26억 톤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임(그림 4 참고).

○ 석유제품(Oil Product)은 휘발유, 석탄유(Coal Oil), 디젤유를 포함함.

– 반면 수입은 2014년 5월 30만 톤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함.

그림 4. 석유제품(左)과 합성수지(右)의 생산 및 수입 추이

(단위: 천 톤)



자료: CEIC.

■ 합성수지 역시 국내 생산 증가와 수입 정체 추세를 보임.

– '14년 5월 합성수지 생산은 580만 톤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반면 수입 규모는 최근 5년간 250만에서 300만 톤 사이에 정체되어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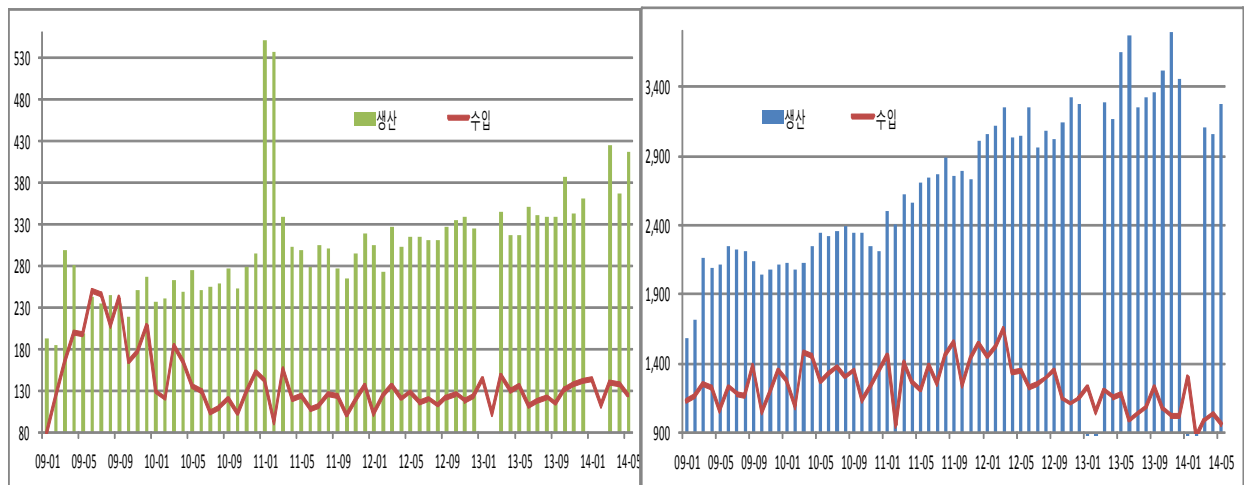
○ 합성수지(Synthetic Resin)는 플라스틱 관련 각종 석유화학 제품의 중간원료를 통칭하며 아크릴수지, 염화비닐수지, 폴리에틸렌수지, 페놀수지 등을 포함함.

■ 합성고무도 국내 생산은 완만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정체 상태임.

- 2011년 1~2월을 제외하면 중국의 합성고무 생산은 점증세를 보이며 2014년 3월에 43만 톤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함.
- 합성고무(Synthetic Rubber)는 각종 고무제품의 중간원료를 통칭함.
- 반면 수입은 13만 톤 가량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음.

그림 5. 합성고무(左)와 합성섬유(右)의 생산 및 수입 추이

(단위: 천 톤)



자료: CEIC.

■ 합성섬유의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4년 들어 다소 줄어들었으며, 수입량도 동반 하락함.

- 2009년 이래 합성섬유의 생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, 2013년 11월 380만 톤으로 최대를 기록함.
- 합성섬유(Synthetic Fibre)는 각종 화학섬유의 중간 원료를 통칭함.
- 그러나 2014년 들어 1년 전 수준으로 생산이 일시적으로 하락함.
- 이에 따라 수입량은 대폭 하락하여 2014년 5월 96만 톤으로 최저치를 기록함.

3. 시사점 및 전망

- 한국의 석유화학 품목 대중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중국 자체의 생산 증가와 제3국의 대중 수출 증가라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남.

- 석유화학 품목의 주요 카테고리(석유제품, 합성수지, 합성고무, 합성섬유)에서 생산 증가와 수입 정체·감소 추세가 나타남.
- 한국의 수출이 감소한 품목에서 베네수엘라, 러시아, 대만, 일본, 미국의 수출이 증가함.

■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의 국내 생산 증가는 중국의 수입대체 정책에 따른 결과임.

- 석유화학 업종은 철강, 시멘트, 평판유리, 태양광 등 고질적인 과잉업종과 달리 수요 초과가 늘 이슈가 돼 왔으며, 중국에서는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자체 생산 설비 증대가 장기적인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음.

■ 제3국의 대중 석유화학 수출 증가는 품목별로 대응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.

- 베네수엘라, 러시아, 미국은 산유국의 이점을 갖고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다른 차원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음.
-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, 이란, 인도네시아 등의 산유국도 석유화학 제품의 대중 수출이 많은 국가이며 한국의 잠재적 경쟁국임.
- 대만과 일본은 非산유국으로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으므로 품목별로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한편 환율의 영향에도 신경써야 함.

■ 중국의 자체 생산 능력이 증대되고, 중국의 고속성장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우므로 석유화학 품목에서 과거와 같은 대중 수출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.

- 중국의 성장률은 '10년부터 '14년까지 10.4% → 9.3% → 7.7% → 7.7%와 같이 하락하며 중속(中速)성장 시대에 접어들.
- 수요 증가가 둔화되는 상태에서 자체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추세이므로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음.
 - 그러나 현재 53% 수준인 도시화율이 2020년까지 60%, 2030년까지 70%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석유화학 품목에 대한 수요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.

■ 석유화학 품목에서의 이러한 구도 변화는 한·중 FTA 협상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함.

- 석유화학 품목의 대중 수출 감소는 한·중 산업관계에서 공수(攻守) 구도의 변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, 한·중 FTA 협상에서 일반/민감/초민감 품목 구분 시 이를 고려해야 함.
-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간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관세 철폐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- 양국의 석유화학 품목 실질 관세율은 모두 56%로 한국의 대중국 실질 관세율 평균(7.8%) 및 중국의 대한국 실질 관세율 평균(8.6%)보다 낮으나,¹⁾ 동 품목은 중간재에 해당하므로 관세 철폐가 상호간의 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됨. **KIEP**

1) 이진면 외(2013), 「한중 FTA 협상준비를 위한 HS코드의 연계 및 관세율 DB 구축」, 산업연구원 정책자료.